10.15686/fkl.2024..63.76 OPEN ACCESS

‘갈라진 혀’의 노래

-일본군 ‘위안부’ 증언의 혼종성과 번역의 문제

이지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

목차

1 ‘전장(戰場)의 언어’로서 증언
2 증언 받아쓰기(dictation)의 양상과 의미
3 비문법적 문장과 의미의 겹구조
4 왜곡된 혼종성과 문법으로(부터)의 귀속/이탈
5 문서고에서 웅성이고 있는 말들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7048878)

국문초록

본고는 일본군 '위안부' 증언의 혼종적 성격을 드러내고, 혼종적인 언어가 다시 신·구제국의 언어로 번역되는 양상을 분석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태평양 전쟁 종전 후 공고화된 '국경(border)'을 경계로 인식되어 왔지만, 위안소라는 전시성폭력 시스템은 '전선(front line)'을 따라 확대되었다. 전선은 기존의 공권력이 구획한 것과는 다른 영역을 만들어 냈고, 특히 언어적 차원에서는 다민족·다국적 주체에 의한 혼합적·혼종적 어문역을 형성했다. 따라서 전쟁에 대한 피해자의 증언은 국민국가의 공식언어로 균질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진상 규명이 우선적 과제였던 증언 연구 초기에는 피해자 증언에 내재하고 있는 이질적이고 혼종적 언어가 상당 부분 소거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 피해자의 구술 언어를 반영하려는 시도에 따라 증언의 혼종성이 텍스트에 기입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영어, 일본어로 번역되면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다. 본고는 증언자가 발화하는 이질적인 언어와 증언자가 스스로 해석하는 의미 사이의 간극을 가시화하고, 이 간극이야말로 폭력적인 언어 조건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은 피해자들의 행위성(agency)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았다. 또, 혼종적인 언어가 영어와 일본어로 번역되면서 새로운 문법 체계 속에 귀속되거나 혹은 그것으로부터 이탈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증언의 번역 양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세계사적 지평으로 이동하면서 보편성을 획득하는 대가로 고유성이나 특수성을 어떻게 왜곡·상실하게 되는지 비판적으로 살피게 한다.

국문핵심어: 일본군 '위안부' 증언, 전선, 국경, 번역, 받아쓰기, 혼종성

1 '전장(戰場)의 언어'로서 증언

1984년 3월 태국에 살고 있던 노수복은 한국대사관에 가족을 찾아 달라 요청했고, 가족과의 재회는 이산가족 찾기 위성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되었다. 오랜 타지 생활에 "노할머니는 이날 30여 분간의 화면 상봉에서 한두 마디를 제외하고는 우리말을 제대로 하지도, 알아듣지도 못해 태국 교포인 윤사주 씨의 통역으로 의

사를 소통"했다.[1] 방송 이후 광복회와 대한항공 측이 노수복의 고국방문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나섰고, 마침내 노수복은 같은 해 5월 42년 만에 고국을 방문하게 된다. 당시 특집 기사는 "한국말을 잊은 한국인 할머니"가 "아리랑 곡조"만큼은 "다시 되살려" 불렀다고 전한다.[2] 여기에 겹쳐지는 또 다른 장면이 있다. 캄보디아에 살고 있던 이남이('훈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되었다가 1998년 55년 만에 고향을 찾는다. 서툰 한글로 "혈육을 찾아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입국한 이남이는 한국어는 물론 고향에 대한 기억도 많은 부분 상실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 기사는 이남이가 "「아리랑」을 정확한 발음과 음정에 맞춰 불러 같은 비행기로 입국한 국내 여행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3]라고 전한다.

미디어가 만들어낸 '위안부' 피해자들의 뒤늦은 귀환 서사, 즉 한국말을 잃어버렸지만 아리랑만큼은 정확한 발음으로 불렀다는 서사는 피해자와 우리 사이의 동질성만을 크게 확대한다. 피해자들은 고향과 혈육을 찾기 위해 고국을 방문하였지만, 그것은 피해자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한 부분일 뿐 전체일 수는 없었다. 1990년 노수복은 윤정옥이 취재차 방문했을 때 자신을 '중국인 유유타'로 소개했으며,[4] 영구 귀국을 위해 입국했던 이남이는 의사소통의 불편함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고 4개월여 만에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갔다. 귀환 서사가 누락한 피해자들의 이후 행적은 '정확한 발음'의 아리랑에 주목하느라 놓친 '불명확한' 말들을 되돌아보게 한다. 이는 해방 후 일본에 남았던 배봉기, 송신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언어는 한국어와 일본어 사이의 문법적 유사성에 의해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한 영화의 인터뷰에서 배봉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매は家が살기가 구차해 가지고 兄弟三名家らは投げて他所に行ってしまった。(…) 今更 고향 가봤자 知ってる人いない。帰って寂しくなる。난

1 「방콕 정신대 할머니 5월 그리던 고국에」, 『경향신문』, 1984.3.13.

2 「일본군 정신대로 끌려갔다 42년만에 돌아온 노수복 할머니」, 『여원』, 여원사, 1984.6, 381쪽.

3 「"내 이름은 나미입니다』」, 『동아일보』, 1997.8.5.

4 윤정옥, 「'정신대' 원혼의 발자취 취재기 (3) 타이 핫차이」, 『한겨레』, 1990.1.19. 국가 바깥에서 등장한 '위안부'의 귀환에 관해서는 이지은, 「민족국가 바깥에서 등장한 조선인 '위안부'와 귀향의 거부/실패 – 1991년 이전 대중매체의 일본군 '위안부' 재현을 중심으로 – 」, 『사이間SAI』 제28권,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0, 391-395쪽 참조.

고향이니까 見たいは見たいさ。知ってる人もいないね。行っても。”[5]

1932년 상해사변과 1937년 중일전쟁 발발, 그리고 1941년 태평양전쟁 개전과 함께 확대된 일본군 위안소는 국민국가의 경계를 초과하는 전시성폭력 제도로, 이에 대한 증언은 균질한 한국어로 발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언의 혼종성은 비단 미귀환/비귀환 피해자들에게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다. 국가 ‘내부’에서 살아왔던 피해자들은 동질한 언어 공동체의 일원이리라 여겨지기 쉽지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정신대연구소 및 여러 연구자들이 함께 발간한 피해자 증언집[6]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일본군 군가, 선전가요를 부르거나, 군인이나 업자의 일본어, 점령지 현지인의 언어를 재현하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1990년대 발간된 증언집 1~3권의 경우 진상 규명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증언자의 말이 상당부분 가필되었지만, 2001년 출간된 증언집 4권부터는 증언자의 구술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증언 텍스트에는 혼종적인 언어들이 자주 등장한다.[7]

---

5 영화 「아리랑의 노래-오키나와의 증언」(박수남, 1991)에서 박수남 감독의 “어머니는요?”라는 한국어 질문에 배봉기가 답한 말을 들리는 대로 받아 적은 것이다. 뜻은 다음과 같다. “어매는 집이 살기가 구차해 가지고 형제 세 명을 던지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 이제 와서 고향 가봤자 아는 사람도 없어. 돌아가서 외로워진다. 난 고향이니까 보고 싶긴 보고 싶지. 아는 사람도 없어. 가도.”(01:22:17-01:23:57)

6 정대협·한국정신대연구소에서 발간된 증언집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한울, 1993;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2, 한울, 1997;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3, 한울, 1999;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한국위원회 증언팀,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4-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 풀빛, 2001(201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한국위원회 증언팀,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5, 풀빛, 200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부설 전쟁과여성인권센터 연구팀, 『역사를 만드는 이야기: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경험과 기억』, 여성과 인권, 2005. 이하 위의 책은 차례로 『증언집』 1~6으로 약칭한다.

7 증언 연구 방법론의 변화에 대해서는 김수진, 「트라우마의 재현과 구술사: 군위안부 증언의 아포리아」, 『여성학논집』 제30권1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13, 35-72쪽 참조.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에 이질적이고 혼종적인 언어가 나타나는 것은 1910년대 후반~1920년대 출생한 피해자들이 식민 통치가 강제한 이중어 상황에서 유년을 보낸 탓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전시성폭력이라는 사건 자체가 다민족·다국적 주체가 섞여 있었던 전쟁터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태평양전쟁 종전 후 공고화된 ‘국경(boder)’을 경계로 인식되어 왔지만, 위안소라는 체계화된 전시성폭력 시스템은 ‘전선(front line)’을 따라 확대되었다. 태평양전쟁 당시 ‘위안부’가 ‘군수품’으로 취급되고 이송되었다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사건의 장소는 전쟁터였으며, 전쟁은 전선이라는 새로운 경계를 통해 기존의 공권력이 구획한 것과는 다른 영역들—법역, 화폐역, 어문역 등—을 만들어 냈다. 특히 “언어의 차원에서 보면, 군인, 업자, ‘위안부’, 현지인 노동자 등 다민족이 접촉했던 위안소는 일본어 사용이 강제된 공간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이질적인 언어가 병존하고 뒤섞여 있는 혼합적·혼종적 어문역”이었다.[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유독 위안소 생활을 재현하는 대목에서 이질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까닭은 사건의 장소가 바로 혼합적·혼종적 어문역이었기 때문이고, 증언집을 통해 ‘전장의 언어’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증언집이 “증언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9]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 운동 초기 증언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하고 우선적인 과제”[10]로 여겨졌고, 한국어 문어체로 가필된 『증언집』 1권은 운동의 확장과 국제적 연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빠르게 번역되어 나갔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수집된 『증언집』 1권은 피해자가 구사하는 이질적이고도 실제적인 언어들을 많은 부분 누락했고, 이는 다시 외국어라는 균질한 타자의 언어로 번역(될 수 있다고 표상)됨으로써 증언은 (언어)공동체 내부로 위화감 없이 귀속될 수 있었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의 기억은 발생론적으로 국민국가에 기반 한 공식 언어로 균질하게 옮겨지지 않는다. 그것은 한국어로 발화되는 가운데에서도 이질적이고 불명확한 언어로 돌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가

8 이지은, 「일본군 ‘위안부’ 서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8-9쪽.

9 2000년 여성국제법정 한국위원회 증언팀, 「서론-이 증언집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증언집』 4, 36쪽.

10 정진성, 「해설: 군위안부의 실상」, 『증언집』 1, 15쪽.

필되는 가운데에서도 파편적으로 출몰하는 것이었다. '우리'라는 (언어)공동체 내부로 말끔하게 회수되지 않는 이질성은 구술 증언의 '받아쓰기'를 통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는데, 흥미롭게도 그 이질성은 번역의 불가능성을 마주한 뒤에야 인식된다.[11]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고는 일본군 '위안부' 증언 가운데 한국어로 수렴되지 않는 이질성과 혼종성에 주목한다. 이러한 시각은 다양한 언어가 혼재되어 있었던 전장의 언어로서 증언을 재사유하게 하며, 동시에 국민국가의 경계를 초과하는 전장의 기억을 새롭게 발견 하게 한다. 나아가 증언자와 '우리'가 균질한 (언어)공동체에 속한다는 믿음, 혹은 증언이 하나의 균질하고 실체적인 언어(공동체)에서 다른 언어(공동체)로 전달(communicate)될 수 있다는 환상을 거부하면서, 민족주의/국가주의 담론으로 거듭 회귀하는 '위안부' 담론의 구조를 탈구축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본고는 '위안부' 증언의 혼종성과 이질성을 고찰하는 시론적 연구로서 구술 증언의 텍스트화 방법론에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되는 동시에, 영어·일어로 번역된 바 있는 증언집 1, 4권, 그리고 그 번역본을 대상으로 삼는다.[12] 증언집은 편집자의 가필뿐 아니라, 생략·절취·재배치 등의 편집이 이루

11 "정보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번역이 필요하다. 번역되지 않으면 정보 속의 무엇이 동일한 상태로 남아 있는지를 확정할 수 없다. 번역되고 전이된 것은 번역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인식 가능하다. 번역할 수 있는 것과 번역할 수 없는 것은 둘 다 반복으로서의 번역에 선행할 수 없다. 번역 불가능성은 번역이 있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번역은 번역 불가능성에 대해 선험적이다."(사카이 나오키, 후지이 다케시 역, 『번역과 주체』, 이산, 2005, 50쪽.)

12 본고에서 다루는 번역본의 서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원서	번역본 서지사항	도착 언어
1	『증언집』 1	The Korean Council for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ed., Keith Howard and trans. Young Joo Lee, *The Stories of Comfort Women*, London:Cassell, 1995. *이하 '*True Stories*'로 약칭함.	영어
2	『증언집』 2	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挺身隊研究会編, 従軍慰安婦問題ウリヨソンネットワーク訳, 『証言 強制連行された朝鮮人軍慰安婦たち』, 明石書店, 1993. *이하 『証言』으로 약칭함.	일본어

어진 텍스트이므로 증언자의 언어를 분석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편집되지 않은 증언자의 육성 텍스트는 접근이 제한되어 있기도 하거니와, 한국어 증언집과 그 번역본이야말로 '위안부'의 증언이 어떻게 국민국가의 공식 언어 내부로 (불不)귀속되어 왔는지 잘 보여주는 텍스트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증언 받아쓰기(dictation)의 양상과 의미

앞서 노수복과 이남이가 오랜 타지 생활에도 아리랑의 선율을 기억해 낸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방직공장에서, 위안소에서, 또 전장의 연회장에서 피해자들이 듣고 불렀던 노래들은 피해자들의 기억에 오래 남아 있었다. 특히 글을 배우지 못하고 일본어를 잘 몰랐던 증언자들도 당시 불렀던 노래만큼은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증언집』1권은 내용 전달에 초점을 맞추어 문어체로 가필되어 있지만, 증언자가 부르는 노래의 원문이 각주로 밝혀진 경우가 드물게나마 존재한다. 반면, 증언자의 구술성을 최대한 반영한『증언집』4권에는 이질적인 언어들이 보다 풍부하게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서도 역시 노래에는 증언의 혼종성이 잘 나타난다.『증언집』1권과 4권에서 증언자가 노래하는 장면을 비교하면

3	『증언집』3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erance for The Issue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 Testimony Team for 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2000, edited and translated by Chungmoo Choi and Hyunah Yang, ***Voices of the Korean Comfort Women-History Rewritten from Memories***, New York: Routledge, 2023. *이 번역은『증언집』4권 개정판(2011)을 저본으로 삼았으며,「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증언집 영어 번역 및 감수」(여성가족부 한국여성진흥원, 2018)을 바탕으로 함. 이하 '*Voices*'로 약칭함.	영어
4	『증언집』4	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 2000年女性国際戦犯法廷証言チーム, 金富子·古橋 綾 編訳,『記憶で書き直す歴史-「慰安婦」サバイバーの語りを聴く』, 岩波書店, 2020. *이 번역은『증언집』4권 개정판(2011)을 저본으로 함. 이하『記憶』으로 약칭함.	일본어

다음과 같다.

(가)『증언집』1권의 이용수 증언
어느날 저녁 한 군인이 왔다. 그는 자기가 오늘 가면 죽는다고 했다. 나는 "독코타이가 뭐하는 거예요?" 하고 물었다. 비행기 한 대에 두 명씩 타고 가서 적의 배나 기지를 육탄으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진과 쓰던 비누와 수건 등 세면도구를 나에게 주는 것이었다. 그는 전에 두어 번 나에게 온 적이 있는데 그때 내게서 성병을 옮았다고 했다. 그 병을 내가 주는 선물로 가져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래 하나를 가르쳐 주었다.

용감하게 이륙한다. 신죽(新竹)을 떠나서
금파(金波), 은파의 구름을 넘어
같이 배웅해 주는 사람도 없고
울어 주는 사람은 도시코뿐이다.[1)]

1) かんこうりりくよ新竹はなれて
きんぱぎぱんのくものりこえて
つれだって見おくる人さえなけりゃ
ないてくれるは年子ひとり (각주는 원문)

-『증언집』1, 130쪽.

(나)『증언집』4권의 윤순만 증언
"'*고고아 고고로노 오또나라 기미와 고고로노 하나노꼬마 도구와 사베시꾸 하나래대모 나꾸나 사까이노 가모미도리 다도에 고노미와 미와에 수도모 나꼬나 사다미노 가모미도리 고에고 나에가요, 고에고나라 하하또나라밍와 오사나꼬노 나에래 아라시니 아대루도까.*'
"그거는 한국말로 뭐냐 하면 언제나 우리 고향을 찾아가서 부모 형제를 만나보고 고향 가면, 고향 춘천을 가느냐고 꼬에꼬 나라요, 여기는 꿈결

같잖아. 조기가 우리집 겉어. 그래도 거기는 딴 나라 아냐, 남에 [나라]. 졸-로 왔지 싶구 그려, 그래도 거기가 워딘지 알어, 워딘지 알어.

"'*와다시노 오찌상 오바상 노 이꼬스요 사까시데 구다사이, 도요가 와다시노.*' 내가 살아서 한국엘 가면은 어떻게 되었는지, 살았으면 하는데 죽었으면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그런 소리야, 한국말로. 그날 하도 우리 할아버지 식구는 어디로 다 도망가버리고 맞는 것이 너무너무 애통하고 불쌍하고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지 싶고 세상을 몰르고 그러니까 (울먹이면서) 항상 그렇게 울기만 했지. (이하 이탤릭은 모두 원문)

-『증언집』 4, 211쪽.[13]

위의 인용문은 대만 위안소(가)와 위안소로 동원되기 전 일본의 군수공장(나)에서의 생활을 증언하는 가운데 당시에 불렀던 노래가 나오는 부분이다. (가)와 (나)는 텍스트 표면에서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가)는 노래의 원문을 각주로 밝혀두긴 했으나 본문에는 한국어로 번역된 의미만을 기입해 두었다. 『증언집』 1권에서 (가)처럼 각주로 노래의 원문을 밝힌 경우는 세 군데 정도 있고, 그 외 "'가와이소오니(불쌍하다)' '나이타라이캉요(울지마라)'"[14]처럼 간단한 일본어 구절을 노출하고 괄호로 그 의미를 번역해 둔 경우가 있다.

(가)의 증언자 이용수는 현재까지 활발한 증언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인용된 부분이 증언 때마다 자주 언급되는 에피소드라 영상을 통해 증언자의 실제 발화를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6월 18일 '주한일본인회'는 나눔의 집을 방문해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들었는데, 해당 영상에서 이용수는 (가)에 나타난 일화, 즉 '독코다이' 병사가 자신에게 노래를 가르쳐준 이야기를 한다. 이 영상에서 이용수는 (가)의 각주에 소개된 노래를 2절까지 일본어로 부르고,[15] 곧이어 병사

13 참고로 『증언집』 4권은 증언의 모든 단락이 열리는 따옴표로 시작하되, 닫히는 따옴표는 각 증언자의 텍스트 마지막에 한 번 나온다. 인용문 가운데 큰따옴표는 증언자의 말이며, 작은따옴표는 "증언자가 직접 인용한 다른 사람의 말 또는 혼자 소리", [] 표시는 "편집자가 보기에 구술 상황에서 생략되어 있거나 의미를 명확히 해줄 수 있는 어휘의 삽입"을 뜻한다. (『증언집』 4, 47쪽.)

14 『증언집』 1, 88쪽.

가 자신에게 한 말을 일본어로 전한다. “トシコ、저 星が、トシコお父さんお母さんお父さんもいるし, おれの母さんお父さんおもいるし、おれが明日出て、死ぬみたら[死んだら-인용자]、星が落ちると。(도시코, 저 별이, 도시코 아빠 엄마도 있고, 내 엄마 아빠도 있고, 내가 내일 나가서 죽으면 별이 떨어진다고)”[16] 이러한 장면은 『증언집』 1권을 위한 면접에서도 증언자가 병사의 발화나 노래를 일본어로 재현했을 것이라 추측케 한다. 『증언집』 1~3권에는 피해 내용의 전달에 집중하여 편집되었기 때문에 ‘위안부’ 증언의 혼합적·혼종적 특성이 상당 부분 소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증언집』 4권은 텍스트 표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 낯선 언어를 발화하는 증언자의 발음을 증언집 본문에 그대로 노출하고 이탤릭으로 표시해 두었다. 이때 『증언집』 1권과 4권의 차이는 단지 증언자가 발화하는 일본어 음가를 본문에 기입했다는 데에만 있지 않다. 『증언집』 4권에서는 증언자가 일본어나 국적 불명의 말을 구사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예컨대, “*빠가야로 코노야로*”(김화선)[17], “*코우코꾸신민노세이시 와레라와 코우코꾸신민*”(정윤홍)[18]과 같이 비교적 의미를 짐작하기 용이한 일본어뿐 아니라, “교라이가 아자루되면, …… 요시바로 나가야 돼”, “*덴녕헤까이 단세이*”[19](김창연)와 같은 불명확한 일본어도 자주 나타

15 증언 기사에서 소개한 노래 가사는 아래와 같다. (가)에 실린 가사는 2절로 보인다.
カンコウ(艦攻＝艦上攻撃機)離陸よ　台湾離れ　金波銀波の雲乗り越えて　誰だって見送る人さえなけりゃ　泣いてくれるは　としこ(イ・ヨンス)が一人だ(칸코(艦攻, 함상공격기)의 이륙이여, 대만을 떠나서. 금파 은파 구름을 뚫고. 누구라도 배웅하는 이조차 없고, 울어주는 사람 도시코 혼자구나.)
カンコウ離陸よ　新竹離れ　金波銀波の雲乗り越えて　誰だって見送る人さえなけりゃ　泣いてくれるは　この子(イ・ヨンス)が一人だ(칸코의 이륙이여, 신주(Hsinchu)를 떠나서. 금파 은파 구름을 뚫고. 누구라도 배웅하는 이조차 없고. 울어주는 사람 이 아이 하나구나.)
「【在韓日本人会】「ナヌム(分け合い)の家」イ・ヨンスお婆さん訪問及び奉仕活動」, 『ASIA NEWS』, 2017.6.18. 〈https://asianews.seesaa.net/article/450971606.html〉, 2024.10.26.

16 위의 영상에서 이용수의 발화(05:05-17)를 받아 적은 것이다. 문법적으로 어색한 부분은 [] 안에 표시했다.

17 『증언집』 4, 53쪽.

18 위의 책, 182쪽.

난다. 또, "*어어이! 밍까이야?*" "*어어이! 준주 망가이야*"[20](김창연), "*타이타이타이캉캉캉*"[21](한옥선)처럼 남양군도 선주민이나 중국 현지인의 언어를 증언자가 기억하는 대로 재현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증언집』 4권에는 이제는 사용되지 않는 옛 지명이나 "아이구메 아구메 아구메 어이구 어이구!"[22], "대창을 쫙쫙 깍은 놈을 요로콤 꼭꼭꼭 꽂아 놓았는디"[23], "그런디 [고자 영감은] 어디 갔디가 틜릉틜릉팅릉 와서는"[24](최갑순)처럼 감탄사, 방언, 음성상징어, 개인어 등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처럼 (불명확한) 외국어, 방언, 고어, 개인어 등이 뒤섞인 구술 증언은 『증언집』 4권의 연구팀에게 "이 발음을 어떻게 옮겨야 하나와 같은 질문"을 수없이 던져주었다고 한다. 거듭되는 고민 끝에 연구팀은 "원녹취문이 담아내야 하는 구술은 문자와는 '다른' 체계의 언어임을 발견"했다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한다.[25] 증언자의 구술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연구팀의 고민의 결과는 반언어·비언어를 기호화한 범례에 잘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서 연구팀이 말하는 "'다른' 체계의 언어"란 구술언어가 기록(transcript)으로 이동(trans-)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다름'을 의미한다. 한편, 증언자가 구사하는 이질적인 언어를 한국어로 이동하는 번역(translation)은 생략된 경우가 많다. 이는 (나)에서 확인할 수 있듯 많은 경우 증언자 스스로 의미를 풀이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술자의 말이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연구팀은 증언자의 구술을 청취하며 한국어 체계 내에서 명확하게 포착되지 않는 언어를 마주하는데, 이때 기록의 방법은 '들리는 대로 적는' 것이었다. 아래의 예문과 각주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다) 『증언집』 4권 최갑순의 증언

---

19 위의 책, 72-73쪽.
20 위의 책, 75쪽.
21 위의 책, 106쪽.
22 위의 책, 151-152쪽.
23 위의 책, 160쪽.
24 위의 책, 162쪽.
25 2000년 여성국제법정 한국위원회 증언팀, 위의 책, 24쪽.

"거 중국 사람들이 해방 막 되고는 지들한테 쬐끔 함부로 헌 사람이면, 막 곡갱이를 가지고 와서, 저녁에 와서 그냥 콕콕 찍어 죽여 그냥, '*왕과 차오니 쌩라대 칭하 치세 호 뮤올라 씰라데 칭*[41])' '니는 나한테 와[서] 우리를 함부로 말을 허고 함부로 썼으닝게, 너넨 인자 해방이 됐응게 죽어라.' 그 소리, 그러곤 그냥 도끼면 도끼, 뭐 낫이면 낫, 뭐 창이면 창, 뭐든 애기면 애기, 어른이면 어른, 뭣이던 콕콕 찔러 죽여.

41) 중국말을 구사하는 부분은 들리는 대로 적은 것임.

-『증언집』 4, 155쪽.

(다)는 중국 동안성으로 동원되었던 증언자 최갑순이 해방 직후의 상황을 묘사한 장면이다. 최갑순은 일본의 패전 직후 중국인들이 조선인들에게 보복했던 일을 회고하며, 당시 중국 사람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다시 재현한다. 이 낯선 언어는 '받아쓰기(dictation)'로 증언집에 옮겨졌다. 받아쓰기를 통해 문자화된 증언집은 증언이 그 자체로 이질적이고 혼종적이라는 점, 아니 증언이 이질적이고 혼종적이기 때문에 받아쓸 수밖에 없음을 드러낸다. 나아가 받아쓰기는 구술증언의 문자화의 원리가 됨으로써 두 가지 의미를 발생시킨다. 하나는 증언(자)에 '원본'의 권위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본디 받아쓰기는 '말해진 것'과 '받아쓴 것' 사이의 일치를 지향한다. 그렇기 때문에 '말해진 것'은 '받아쓴 것'이 동화되어야 할 원본 혹은 규범으로서 권위를 지닌다. 그런 점에서 구술증언이 문자화되는 과정에서 수행된 '받아쓰기'는 구술자와 채록자, 곧 식민지 하층계급 출신의, 많은 경우 글을 알지 못하는 '위안부' 피해자와 엘리트 여성 사이의 권력 구도를 (일시적일지라도) 역전한다. 다른 하나는 받아쓰기가 발화와 의미를 분리한다는 점이다. 음가를 들리는 대로 표기하는 받아쓰기는 이질적인 언어를 해석하지 않은 채 텍스트에 기입할 수 있게 한다.[26] 위의 인용문에서 이탤릭으로 표시된 (불명확한)

26 받아쓰기는 증언의 발화와 의미를 구분함과 동시에 증언에 '원본'으로서의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증언자의 모든 말을 증언으로 귀속시키거나 혹은 의미에서 떼어낸 채 증언이라는

중국어는 한국어 화자에게 의미를 지니지 않는 음가의 연속체일 뿐이다. 요컨대, 증언의 '받아쓰기'는 구술 증언에 권위를 부여하고, 혼합적·혼종적 언어를 텍스트의 표면에 기입하는 방법론으로 기능하지만, 동시에 그 혼합적·혼종적 언어를 음가 그대로 기입함으로써 의미의 공백을 남겨둔다.

3 비문법적 문장과 의미의 겹구조

번역이 번역 불가능성에 대해 선험적이라는 사카이 나오키의 지적처럼 간과되어 있던 의미의 공백은 제3의 언어로 번역되면서 가시화된다. 증언집의 영역, 일역은 도착언어가 한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증언자가 스스로 번역해 주었던 '점령지 언어-한국어', '일본어-한국어'의 등가성을 제3의 언어를 매개로 보여주어야 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어본인『증언집』4권에 이미 존재했던 이질적인 언어들이 번역 작업에서 주요 곤경으로 떠 오른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다. 특히『증언집』4권의 연구팀이 '구술의 텍스트화'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27] 영역본 *Voices*는 '위안부' 증언자들의 이질적인 언어의 번역 문제를 주요한 쟁점으로 논의한다.

> 아홉 명의 '위안부'는 독특한 지역 방언과 악센트, 다양한 구어체 표현을 사용하는 다섯 개의 다른 지역 출신이다. 이 여성들은 일생 동안 여러 장소를 거쳐 왔기 때문에 지역별·시대별로 구체적인 언어 습관을 지니며, 때로는 꽤 오래된 단어들을 사용하는 등 언어의 매우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게다가 '위안부'들은 군대와 함께 이주했기 때문에 이 선집에 실린 여성들은 기억에 남아 있는 중국의 지역어, 일본의 대중가요, 러시아어 구절, 심지어는 모호한 종교적 주문 등을 그들의 서사에 자주 삽입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의 전문성에 의

그 자체만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증언의 물화(物化)'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증언의 물화에 관해서는 이지은,「일본군 '위안부' 서사 연구」, 앞의 논문, 4장 3절 참조.

27 2000년 여성국제법정 한국위원회 증언팀, 앞의 책, 37쪽.

존했다. 번역팀은 언어의 특수성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오래된 단어나, 사어(死語)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여성들은 종종 전쟁 전의 중국 북부 지명(태평양전쟁 이후 만주로 바뀌었다가 현재 다시 중국으로 바뀐 '만주국' 같은 용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공장 및 사업체의 관행, 모호한 강과 지류의 명칭, 식물과 현지 음식의 이름, 의약품 등을 언급했다. 우리는 이 모든 모호한 정보를 추적해야 했다.(번역-인용자)[28]

『증언집』 4권의 영문 번역팀은 증언의 구술성과 혼종적 특성이 번역의 주된 난관이었음을 토로하며, 구술 언어의 모호함은 당시 증언 채록에 참여했던 면접자와의 논의를 통해서, 증언 언어의 혼종성은 다국어에 능통한 번역자들의 협업으로 타개해 나갔다고 밝힌다.[29] 앞서 인용한 부분의 번역본을 다시 비교해 보면 일본어 혹은 국적 불명의 언어가 영어로, 또는 다시 일본어로 번역되면서 나타나는 문제를 포착할 수 있다. 먼저 (가)의 번역본은 아래와 같다.[30]

(가)-영역

One evening, a soldier same[came의 오식으로 보임-인용자] to me and said he would be in a combat later that same evening that would mark the end of his early life. I asked him what his commando unit was. He explained that one or two men would fly an aeroplane to attack an enemy ship or base. They would be suicide pilots. He gave me his photo and the toiletries he had been

28 Chungmoo Choi, "PREFACE TO THE ENGLISH TRANSLATION", *Voices*, pp. xiv-xv.

29 Hyunah Yang, "Preface to The English Translation: "Now Halmŏni(Grandmother) Talks to Us in English-Method of Translation adn Its Significance", *ibid.*, pp. xxi-xxii.

30 이하 앞서 제시한 증언에 대한 번역문을 인용할 경우, 원문을 인용하였으므로 번역은 생략한다. 다만 역자주와 같이 번역문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는 한국어 번역을 첨부한다.

using. He had come to me twice before and said he had got venereal disease from me. He said he would take the disease to his grave as my present to him. Then he taught me a song:

I take off with courage, leaving Sinzhu behind,

Over the golden and silver clouds.

There is no one to see me off:

Only Tosiko grieves for me. (이탤릭은 원문, 밑줄은 인용자)

–*True Stories*, p. 93.

(가)-일역

ある日の夕方ひりの軍人が米て、自分は今日出て行くと死ぬのだと言いました。私が「特攻隊はどんなことをすの?」と聞くと、「飛行機一機に二人ずつ乗って、敵の船とか基地を肉弾で攻撃するんだ」と説明してくれました。そして、自分の写真と使っていた石鹸とタオルと洗面道具を私にくれるのでした。その人は前に二度ほど私のところに来たとがあるのですが、その時私から性病をうつされたそうです。その病気を私からの贈り物と思って持って行くと言っていました。 そして歌をひとつ教えてくれました。

幹候[幹部候補生]離陸よ 新竹はなれ

金波、銀波の雲のりこえて

連れだって見送る人もなけりゃ

泣いてくれるはトシコひとり(밑줄은 인용자)

–『証言』, pp. 140-141.

이들은 각각 1995년, 1993년에 영국과 일본에서 출간된 것으로, 편집자의 말이나 역자 후기를 통해 당시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맥락과 담론 지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두 번역본 모두 번역 세부 방침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았다. 다만 영역본은 증언의 원본이 한국어본에 남아 있으니, 번역의 목표

를 “명확성(clarity)”에 두고 “번역의 긴급성과 구어체 흐름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몇 개의 반복 섹션과 각주를 생략”하였다고 밝히고 있다.[31] 실제로 영역본은 증언의 몇 군데를 생략하기도 하고, 문장이나 문단의 순서를 바꾸기도 한다.

(가)-영역을 살펴보면, ‘독코타이(特攻隊)’처럼 고유명 그대로 표기될 법한 일본 군대 특유의 군사 조직도 일반적인 영어 단어인 ‘command unit(특공대)’로 번역되어 있다. 편집자의 말처럼 문화적 특수성이나 고유성을 살리기보다는 가독성을 높이는 번역을 택하고 있다. 한국어본에서 각주로 남아 있었던 일본어 가사를 생략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노랫말이 이탤릭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것이 원서의 언어 차이를 표시하지는 않기 때문에[32] 독자는 번역본을 통해 증언자가 어떤 언어로 노래하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영역본을 일역본과 대조하면 노랫말의 의미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앞서 한국어본 (가)는 증언자 노래의 첫 소절을 “용감하게 이륙한다”라고 번역하고 각주에 원문 “かんこうりりく”를 밝혀뒀는데, 여기서 “칸코우(かんこう)”라는 단어의 의미는 분명하지 않다. “용감하게”라고 번역한 것은 당시 증언자가 그렇게 풀이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조사자가 발음이 다른 유사한 단어로 번역했을 수도 있다. 영역본은 노랫말의 한국어 의미만을 고려하여 ‘용기(courage)’라 번역했지만, 일본어 번역자들은 같은 단어를 ‘간부후보생’의 줄임말 “간후(幹候, かんこう)”로 해석했다. 참고로 앞서 소개한 재한일본인회의 나눔의집 방문 기사에는 “칸코우”를 함상공격기(艦上攻撃機)의 준말 ‘함공(艦攻, かんこう)’로 해석하였고, 또 다른 일본 기사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가타카나로 표기해 두었다.[33]

정확하게 해석되지 않는 ‘칸코우’는 이들 중 어느 하나일 수도 있고, 단순히 잘못된 기억일 수도 있으며, 혹은 증언자의 일본어 이름 ‘도시코’를 삽입한 마지막 구절처럼 당시 병사의 상황을 투영한 특별한 단어일 수도 있다. 또는 단어의

31 Keith Howard, “Introduction”, *True Stories*, pp. vii-viii.

32 예컨대,『증언집』1권에서 한국어로 서술된 노래 가사도 ‘삽입 시’처럼 이탤릭으로 표시하고 있다.『증언집』1, 143쪽; *True Stories*, p. 101.

33 「国際社会における協働 ～ジェンダー平等と人権、そして平和へ～」,『堺市』, 2012.12.19., 〈https://www.city.sakai.lg.jp/shisei/jinken/danjokyodosankaku/kaigi2009/hokoku2009/bunkakai/jyendabyodo.html〉, 2024.10.27.

실제 의미와 증언자가 이해하고 있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다. '칸코우'는 매우 사소한 단어이지만, 이는 일본군 '위안부'의 증언에 쉽게 해석되지 않는 이질적인 언어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당대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가필된『증언집』1권에서는 의미로 회수되지 않는 말들이 상당 부분 소거되었을 것이라 추측하게 한다. 이러한 이질적인 언어들은 증언자의 구술성을 최대한 반영하려 했던『증언집』4권에서 보다 풍부하게 나타난다.

(나)-영역

"'*Gogo a gogoro no otto nara gimi wa gogoro no hanano kkoma d(b)oku wa sabeshiku hanaredemo nakuna sakai no kamomidori dadoe gono mi wa miwaesu domo nakona sadami no kamomi dori goego naenaga o goego nara haha to nnara min wa osanako no naere arashi ni aderudo-ka*'[9]

"What that means in Korean is, when we go home and see our parents and siblings, when we go home, are we going home to Ch'unch'ŏn, *goego nara*,[10] it's like a dream there. That place over there looks like my house. At least that place isn't a foreign country, someone else's [country]. It feels as if I came by that way, I know where that is, I know.

"'*Watashi no ojiisan obaasan no ikotsu o sagashite kudasai/Dōka watashi no*' (Please look for the remains of my grandfather and grandmother, please my…). When I survive and return to Korea, [I want to know] what has happened, I hope [they are] alive, but if they aren't I will take revenge. That's what that means in Korean. On that day, all the family members of my grandfather ran away and I felt so much sorrow and pity for my grandfather being beaten, I worried that he had died, but I didn't know the world (while whimpering), I just cried all the time.

footnote

9) This lyric probably comes from a 1940 song titled “新妻鏡” (*Niizuma Kagami*), a theme song of a movie by the same title made by Toho company:

僕 (ぼく) がこころの良人 (おっと) なら
君 (きみ) はこころの花 (はな) の妻(つま)
遠 (とお) くさびしく離 (はな) れても
泣 (な) くな相模 (さがみ) のかもめどり
たとえこの眼は見えずとも
泣 (な) くな 相模 (さがみ) のかもめどり
強くなろうよ 強くなれ
母となる身は幼児 (おさなご) の
なんで嵐にあてらりょう

(이 가사는 1940년 토호 컴퍼니에서 만든 동명의 영화 주제곡인 ‘新妻鏡’(니즈마 가가미)라는 제목의 노래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내가 그대 마음의 남편이라면[보쿠가 고코로노 옷토나라]
그대는 내 마음속 꽃다운 아내[기미와 고코로노 하나노쓰마]
멀리 외롭게 떨어져 있어도[도-쿠 사비시쿠 하나레테모]
울지 마라, 사가미(相模, 지명)의 갈매기야[나쿠나 사가미노 가모메도리]
비록 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다토에 고노메와 미에즈토모]
울지 마라, 사가미의 갈매기야[나쿠나 사가미노 가모메도리]
강해지자 강해져라[쓰요쿠나로요 쓰요쿠나레]
어머니가 되는 몸이 어린아이의[하하토 나루미와 오사나고노]
폭풍에 어찌 맞서지 않으리[난데 아라시니 아테라료-])

10) “*goego nara*(強くなろうよ 強くなれ-taken from the above *Niizuma Kagami*). The translator suggests two interpretations for combining the Japanese phrase koeko nara yo with the phrase of “going home in Chuncheon, which is not Nah’s hometown. One

possibility is that if the phrase "*goego naenaga o goego nara*" meant "強くなろうよ強くなれ(*tsuyoku narōyo tsuyoku nare*)" in the song, The other possibility is that the Japanese word koeko sounds similar to another Japanese word for hometown *kokyō* (故郷, こきょう) and *narayo* could refer to a Korean word that refers to a country. Together Na might be saying "[here is] my hometown (*koeko*), my country."

("*고에고 나라*(強くなろうよ 強くなれ-위의 〈신처경〉에서 온 구절)" 번역자는 일본어 문구인 '고에고 나라 요'와 나 씨[증언자 윤순만을 의미함. 윤순만은 영역본에 '나순만'(가명)으로 실려 있음-인용자]의 "춘천—나 씨의 고향은 아님—에 있는 집으로 가자"를 결합한 두 가지 해석을 제안한다. 첫 번째 가능성이 이 노래의 "*고에고 나에나가 오 고에고 나라*" 곧 "강해지자 강해져라(쓰요쿠나로요 쓰요쿠나레)"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다른 가능성은 일본어 단어 '*고에코*'의 발음이 다른 일본어 단어 고쿄(고향)와 비슷하고, '*나라요*'는 한국어 단어 '나라'를 의미할 수 있다. 아마 둘을 합쳐 나 씨는 "[여기는] 내 고향 (*고에고*), 내 나라"라고 말했을지 모른다.)(이탤릭은 원문, 밑줄 및 번역은 인용자)

-*Vocies*, p. 114.

(나)-일역

「**ココハココロノオットナラ キミハココロノハナノコマ トクハサビシクハナレテモ ナクナ サカイノカモミドリ タトエコノミワミエスドモ ナクナサカイノカモミドリ コエゴナエナガヨ コエゴナラ ハハトナラミンハ オサナゴノ ナエレアラシニアデルドガ**[*2]」

それは韓国語でどういう事かというと、 いつもわが故郷を訪ねて父母兄弟に会う、 故郷に行けば、故郷·春川に行くのかと、ここは夢のなかのようじゃないか。向こうが私の家みたいで、でもそこは別の国じゃない、 他の人の[国]。そういう所に来たんだと、だけどそこがどこだか分かる、どこだか分かる。

「ワタシノ オジサン〔おじいさん〕 オバサン〔おばあさん〕ノ イコスヲサカシテクダサイ〔遺骨を探してください〕 ドヨカ〔どうか〕 ワタシノ」。 私が生きて韓国に行ったらどうなるか、 生きていきたいけど死んだら恨みを晴らしたい、そういう意味だよ、韓国語では。あの日あまりにも祖父の家族はどこかに逃げてしまって、〔祖父が〕殴られのがあまりにも可哀想で悲痛で、祖父が死んでしまうかと、世の中のことを知らずにいたから(泣き出しそうに)、そうやっていつも泣いてばかりだった。

訳注

*2. 日本映画『新妻鏡』(一九四0年公開)の主題歌の一部。 歌詞は「僕がこころの良人なら 君はこころの花の妻 遠くさみしく離れても なくな 相模のかもめどり たとえこの眼は見えずとも 泣くな さがみの かもめどり 強くなろうよ 強くなれ 母となる身はおさなごの なんで嵐にあてらりょう」

*2 일본영화『신처경』(1940년 공개)의 주제가의 일부. 가사는「내가 그대 마음의 남편이라면 그대는 내 마음속 꽃다운 아내 멀리 외롭게 떨어져 있어도 울지 마라 사가미의 갈매기야 비록 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울지 마라 사가미의 갈매기야 강해지자 강재져라 어머니가 되는 몸이 어린아이의 폭풍에 어찌 맞서지 않으리」(볼드는 원문, 밑줄 및 번역은 인용자)

-『記憶』, pp. 207-208.

위의 인용문은 앞서 제시한 윤순만의 증언 (나)에 대한 번역문이다. 윤순만은 근로정신대로 동원되어 일본의 방직회사에서 노역생활을 하다가 다시 히로시마로 이송되어 '위안부' 생활을 하였다. 인용된 부분은 일본의 방직회사에서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울기도 하고 노래도 하던 때를 재현한 대목이다.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증언자가 일본어로 불렀던 노래는 외래어를 표시하는 방식인 이탤릭체와 가타카나로 표시되어 있다. 다만, 일역본은 다른 외래어 표기와 구분하기 위해 증언자가 말하는 일본어는 굵은 가타카나로 표시했다. 이 외에도 두 번역본 모두 한국인 증언자에게서 자주 등장하는 감탄사인 '아이고'(aigoo, アイゴ)나

‘아리랑, 도라지 타령’처럼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고유명사들을 한국어 발음 그대로 이탤릭/가타카나로 표기했고, 일역본의 경우 어머니, 아버지 등 가족을 지칭하는 명사도 음차로 표기하고 있다. 그 결과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번역본은 매우 이질적인 언어가 뒤섞여 있는 혼종적인 텍스트로 나타난다.

또한, 번역본에서는 증언자가 말하는 외국어 또는 국적 불명 언어의 의미가 적극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영어와 일어 번역팀은 증언자의 노래를 1940년 개봉한 일본 영화 〈신처경(新妻鏡)〉의 주제가로 보고 있다. 번역팀이 역주에서 제시한 노랫말과 증언을 비교해 보면 음가가 유사한 부분이 확인된다. 그런데 그간 의미의 공백이었던 노랫말의 의미를 밝히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노랫말의 의미가 증언자 스스로 번역하는 것과는 미묘하게 어긋나기 때문이다. 〈신처경〉의 노래 가사는 멀리 떨어져 있는 연인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다. 증언자가 영화를 보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영화는 여자 주인공이 사고로 눈을 잃고 사랑에 배신마저 당하지만, 끝내 아이를 지키고 새로운 사랑을 찾는다는 내용이다.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어머니가 될 몸으로서 강해지자’ 등의 노래 가사는 주인공의 심경과 처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노랫말을 증언자는 “그거는 한국말로 뭐냐 하면 언제나 우리 고향을 찾아가서 부모 형제를 만나보고 고향 가면, 고향 춘천을 가느냐고 꼬에꼬 나라요, 여기는 꿈결 같잖아”라는, 즉 고향을 그리워하고 가족과 재회하기를 염원하는 자신의 심경을 담은 노래로 풀이한다.

이때 증언자는 노랫말을 풀이하면서 다시 한번 노래 가사였던 “꼬에꼬 나라요”라는 구절을 덧붙이는데, 한국어 발화 중에 끼어든 이 이질적인 구절을 일본어 번역본은 삭제하였고, 영어 번역본은 나름의 해석을 시도하였다. 영역본의 역주 10에서 번역자는 “꼬에꼬 나라요”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을 제안한다. 하나는 노랫말 그대로 ‘강해져라 강해지자’로 해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꼬에꼬 나라요’를 ‘고향’을 뜻하는 일본어 단어 ‘고쿄(こきょう)’와 국가를 의미하는 한국어 ‘나라’를 합친 말로 해석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가 증언자가 풀이하는 뜻에 좀더 가까워는 보이나, 어느 경우라도 증언자가 왜 이 노래를 ‘언제나 우리 고향을 찾아가서 부모 형제를 만나보느냐’라는 뜻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증언자가 구사하는 언어가 어떠한 착종의 결과인지는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증언자는

나름으로 노래를 개사해서 불렀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일본어 노래를 자신이 아는 언어 안에서 나름으로 해석하여 부른 것일 수도 있다. 혹은 당시 방직공장에서 일하던 조선 사람들 사이에서 〈신처경〉이라는 노래가 어떤 계기로 그런 식의 의미를 내포했는지도 모른다.

바로 다음 단락도 유사한 문제가 나타난다. 두 번째 단락의 일본어 발화 "*와다시노 오찌상 오바상 노 이꼬스요 사까시데 구다사이, 도요가 와다시노.*"는 일본어로 비교적 분명하게 해석이 된다.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영역본과 일역본에는 공히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유골을 찾아주세요. 제발 저의(…)'라는 번역이 첨가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에도 증언자는 이 말이 "한국말로" "내가 살아서 한국엘 가면은 [가족이-인용자] 어떻게 되었는지, [가족이-인용자] 살았으면 하는데 죽었으면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그런 소리"라고 풀이한다. 윤순만은 집으로 찾아온 군인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다고 증언했다. 윤순만이 동원되면서 마지막으로 본 고향집의 장면은 할아버지가 군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식구들이 어디론가 다 도망가고 할아버지가 맞는 것이 너무너무 애통하고 불쌍했던 '그날'은 자신이 동원되던 날을 의미한다. '할아버지가 살았으면 하지만 죽었으면 내가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은 "*와다시노 오찌상 오바상 노 이꼬스요 사까시데 구다사이, 도요가 와다시노.*"라는 한국어 음운체계로 발화되는 일본어 문장으로, 한국어도 일본어도 아닌 말로, 설령 그것이 일본어로 해석되더라도 그 뜻으로만 제한할 수 없는 의미로 발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증언집』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위안부'의 노래들, 예컨대 '위안부'가 부르는 일본군의 군가[34], 전쟁을 정당화하는 선전 영화의 주제가[35], 군인이나 업자로부터 들은 이야기 등 또한 재청취될 필요가 있다. 증언자가 발화하는 불완전하고 비문법적인 언어와 증언자가 스스로 해석하는 의미 사이에는 간극이 있고, 이 간극에는 하고자 하는 말을 낯설고 왜곡된 언어로 말해야 했던

34 강무자, 「파라오의 폭격 속에서 살아나와」, 『증언집』 2, 51쪽.

35 예컨대, 문옥주, 한옥선 등의 증언에 등장하는 「支那の夜(지나의 밤)」(1940)은 노래의 흥행에 이어 동명의 영화로 제작되면서 일본제국의 점령지 일대에서 유행했다. 영화는 일본제국의 중국 진출을 정당화하는 국책영화로 평가된다. 모리카와 마치코, 김정성 옮김, 『버마전선 일본군 '위안부' 문옥주』, 아름다운사람들, 2005, 56쪽; 『증언집』 4, 105쪽.

폭력적 조건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고통과 염원을 표출하고자 했던 생의 의지, 즉 피해자들의 행위성(agency)이 각인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포스트 증언자' 시대 증언 연구는 증언을 통한 사실 확인을 넘어 축자적 해석으로 환원되지 않는, 의미의 공백에 각인된 피해자의 행위성을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의미화하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4 왜곡된 혼종성과 문법으로(부터)의 귀속/이탈

번역본은 일본어 외에 중국어, 러시아어, 남양군도의 현지어 등에 대한 해석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으나, 여전히 불명확한 의미로 남아 있는 구절이 많다. 예컨대, 중국어를 들리는 대로 표기했던 (다) 또한 간단한 중국어 욕설이나 '자비를 베풀어 달라'와 같은 관용적 표현은 추적이 되지만, 증언자의 특수한 상황을 표현한 메시지, 이를테면 '죽어도 고향에 가서 죽고 싶다'와 같은 의미는 증언자가 발화한 문장으로부터 도출하기 어렵다. 영역본은 증언자의 중국어 발화를 소리 나는 대로 이탤릭으로 옮겨 두었고, 최대한 중국어 원어를 추적하여 역주를 붙였다.[36]

---

36 해당 부분의 역주만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8 The most probable Chinese that she originally heard would be "*wo cao ni* (我操你, fuck you) *sheng la den qing ha* (生拉的清哈, indecipherable in Chinese) *jian huo bu ru si qu* (贱货不如死去, bitch you'd better die)."(그녀가 들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중국어는 다음과 같다. "와 카오 니(我操你, 씨발) 생라덴칭하(生拉的清哈, 중국어로 해독할 수 없는 말) 치아 뿌오 부 루 시 쿠(贱货不如死去, 나쁜 년 죽어라)")

9 Again, the Chinese phrase she had heard at the time is "*Ning lao xing xing hao* (您老行行好, please be merciful) *ning lao xing xing hao* (您老行行好, please be merciful) ning lao xin shan xing xing hao (您老心善行行好, *please be merciful since you have a good heart). Gei wo* (给我, give me) *chang a* (唱啊, indecipherable in Chinese), *gei wo* (给我, give me) *chang a* (唱啊, indecipherable in Chinese). *Xing*(行, fine)." (그녀가 당시 들었던 중국어 문구는 다음과 같다. "니 라오 지 지 하오(您老行行好,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니 라오 지 지 하오(您老行行好,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니 라오 신 센 지 지 하오(您老心善行行好, 당신은 마음씨가 착하니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게이 와(给我, 주십시오) 창하(唱啊, 중국어로 해독할 수 없는 말), 게이 와(给我, 주십시오) 창하(唱啊, 중국어로 해독할 수 없는 말), 칭(行, 좋아)." (이탤릭은 원문) (*Voices*, pp. 78-79.)

반면, 일역본은 증언자의 발화를 음가 그대로 가타카나로만 표기해 두었다.[37] 중국어를 모르는 증언자가 '죽어라'라는 욕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는 간청의 말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해방 직후 중국에 있던 조선인들이 얼마나 다급한 곤경에 처했는지 가늠하게 한다.

그런데 영역본에서는 이와 같은 중국어 발화("*Ninae jajahoa ninae jajahoa, ninae sinsae jajahoa ggeo changha ggeo changha*")[38]뿐 아니라, 증언자가 외우는 황국신민서사("*kōkoku shinmin no seishi warera wa kōkoku shinmin*"),[39] 남양군도 선주민의 말("Hey! *Mankkaiya?*", "*He-y*! *Junju Mangaiya*")[40]도 이탤릭으로 표기된다. 또한, 'tangerines'로 번역되는 밀감(*milgam*)과 미깡(*mikan*),[41] 'sleep, sleep'으로 번역되는 '요시, 요시(*yoshi, yoshi*)'와 '자장, 자장(*chajang chajang*)',[42] 그 외 사쿠(*Sakku*), 타다미(*tatami*), 도라지타령(*Torajit'aryŏng*) 등 전장의 권력에 따라 위계지어져 있던 언어들이 모두 이탤릭으로 표기된다. 즉, 『증언집』 4권이 한국어라는 언어 공동체를 기준으로 그것의 외부적 언어들을 이탤릭으로 구별하였다면, 영역본은 영어 공동체를 기준으로 외부적인 것 일체를 이탤릭으로 표시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영역본으로 옮겨지면서 내부와 외부, 우리와 타자가 재분배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텍스트의 규범 속에서 증언자의 '아이구(*Aigoo*)', '아유(*Ayu*)'와 같은 한국어 감탄사를 소리 그대로 이탤릭으로 표기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일까. 번역본 서문 '이제 할머니는 우리에게 영어로 말한다'는 "아이구", "아이유" 등과 같은 한국어를 전달하기 위해 "소리가 나는 대로 보존(preserved)하고 각주와 괄호를 삽입"[43]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증언자의 입말, 개인어 등과 같은 고유성을 번역본에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37 『記憶』, pp. 152-153.
38 *Voices*, p. 78.
39 *ibid.*, p. 96.
40 *ibid.*, p. 22.
41 *ibid.*, p. 20.
42 *ibid.*, p. 41.
43 Hyunah Yang, *ibid.*, p. xx.

해석된다. 그러나 고유성의 표지들은 영어 표기 체계 속에 편입되는 순간 굴절되고 만다. 영어 텍스트의 문법에서 이탤릭은 강조의 용법이자, 외국어를 표시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탤릭체 표기 방식은 영어를 모국어로 말하는 사람들을 중심에 배치하고 그렇지 않은 화자들을 타자화하는 문화 행위로 해석되기도 한다."[44] 이와 같은 영어 표기 체계 속에서 증언자의 혼종적인 언어, 고유성의 표지들은 이탤릭이거나 아니거나 하는 방식으로, 다시 말해 영어라는 균질한 언어 공동체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translate) 것과 아닌 것으로 구분되고, 균질한 언어 내부로 이동하지 못한 외부적인 것은 점령지 현지인의 말이든 제국군인의 일본어든 동일하게 이탤릭으로 표기된다. 따라서 증언자의 고유성('아이구')을 소리 그대로 표기하려는 시도는 그 의도와 별개로 텍스트를 지배하는 문'법' 속에 포획되면서 외부적인 것으로서 가시화된다. 즉, 보존되는 것은 '고유성'이 아니라, '타자성'이라는 표식이 되고 만다.

고유성이 타자성으로 굴절되고, 번역과 번역 불가능성이 혼재되면서 '영어로 말하는 할머니'는 단적으로 '오 마이 가쉬!(Oh, my gosh!)'와 '아이고'를 동시에 발화하는 혼종적 주체가 된다. '전장의 언어'라는 혼종적 언어가 다민족·다국적 주체가 뒤섞여 있던 전쟁의 기억을 환기한다면, 영어 텍스트 문법에 의해 구성된 혼종적 주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소위 '국제적', '보편적' 의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실되거나 왜곡되기 쉬운 특수성과 고유성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점검하게 한다.

(라) 『증언집』 4권 최갑순의 증언

…… 고로콤 나를 묶어 놓고는 (댕기로 손발이 묶이는 시늉을 하며) '음마아! 아유아유매에! 아이구!'

-『증언집』 4권, p.172.

---

44 Jennifer De Leon, "The Borderlands of Language: Using Italics for "Foreign" Words(Part I)", 2012; 조의연, 「이중 언어 영어 작가 후노 디아스(Junot Díaz)의 탈 이탤릭체 담론의 비판적 분석」, 『철학·사상·문화』 제38호,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22, 280쪽에서 재인용.

(라)-영역

ties me up like this (pretends to have her hands and feet tied with a hair ribbon) 'Oh my gosh! *Ah ah ah ah! Aiyoo aiyoo meh! Aigoo*!'

-*Voices*, p. 88.

한편, 일본어 번역의 경우, 증언자의 구술에서 일본어 발화가 많이 나타나 문제가 좀더 복잡하다. 일본어 번역본은 번역이 불가능한 이질적인 언어들을 가타카나로 표기하되, 증언자가 일본어를 발화하는 경우는 굵은 글씨체의 가타카나로 표기하여 구분을 하였다. 그런데 증언자의 일본어는 장음, 탁음과 같은 발음의 측면부터 문법적 요소까지 일본어의 규범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나)-일역의 사례에서 나타나듯, 의미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는(첫 번째 단락) 본문에 음가만 표시하고, 해석이 되는 경우는 주석을 통해 의미를 밝혀두었다. 반면 비교적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는 경우 〔〕 기호를 통해 본문에 교정 내용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파편적으로 등장하는 짧은 문구들은 따로 교정을 하지 않거나, 본문에 곧바로 정정하여 표기해 두었다.

(마) 『증언집』 4권 김창연(가명) 증언

교라이, 왜놈말로는 우리말 잠수함이 교라이[2]입니다. 교라이가 아자루 되면, 그때는 어떻게 뛰어내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된다 카는지, 그거 인자 요시바로 나가야 돼.[3] 정보가 오는지 배가 가다가 그게 있다 싶으면 서더라고. 서 가지고 하룻밤씩 자고.

그래 피해 가는 데도 거기서 파산되어버린 거라, 대만하고 오끼나와 사이에[서]. 선장하고 기관장하고는 다 건져가야, 살려 가야, 거기 가서 큰소리치고 살텐데, 자기네가 사람을 많이 죽여놓으니까 갈 수가 없어 가지고, 갑[판]에 올라가지고 *덴녕헤까이 단세이*[4]하고 자진하고 죽더라고.

2) 교라이의 실제 뜻은 어뢰임.

3) 어뢰가 터지면 갑판으로 나가야 된다는 의미로 추정됨.

4) 자살하기 전에 외치는 말로 추정됨.

-『증언집』 4권, pp. 72-73쪽.

(마)-일역

ギョライ。倭奴のことばで潜水艦のことを**ギョライ**と言います。 **ギョライ**に当たったら、 そのときはどうやって飛び降りなくちゃいけないとか、どうしたらいいかとか、そうしたらヨシバに出ないといけない。1 情報が来るのか、 船が進んでそれがあるようなら止まる。止まってそのまま一晩泊まる。そんな風にして逃げていったのにダメになってしまったよ、台湾と沖縄の間[で]。船長と機関長がみんなを助けて、 救ったら、 あっちに行って大な態度できるのに、 自分らがたくさんの人を死なせたから行けなくて、 甲[板]に上がって「**テンノウヘイカ バンザイ**」といって自分から進んで死んでいったよ。

原注

1 魚雷が爆發したら甲板に出なくてはならないという意味だと思われる。

-『記憶』, pp. 67-68, 82.

(마)는 증언자 김창연이 시모노세키에서 남양군도로 이송되던 중에 배가 난파된 상황을 묘사하는 장면이다. 김창연은 "교라이가 아자루되"어서 배가 난파되었다고 하는데, 그는 '교라이'를 잠수함이라는 뜻으로, '아자루'를 공격, 습격[45]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본 주석에 설명되어 있듯, 교라이의 본래 뜻이 '어뢰(魚雷, ぎょらい)'이다. 증언자는 아마 '잠수함이 어뢰에 맞으면' 정도의 의미를 표현한 듯하다. 이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들었던 말들이 증언자의 기억 속에서 착종된 결과일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 증언자는 선장과 기관장

45 영역본에서는 '아자루'를 영어 'assault(공격)'에서 비롯된 일본어 アサルト(공격, 습격)라고 해석하고 있다. (*Voices*, p. 20.)

이 “덴녕헤까이 단세이”를 외치고 자진했다고 말한다. 이때 군인이 죽기 전에 외친 말은 “덴노헤이카 반자이(天皇陛下万歳, 천황폐하 만세)”로 추정된다. 이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천황과 황실의 번영을 기원하는 말이자,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이 옥쇄 직전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 외친 말로 익히 알려져 있다.

일본어를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던 증언자가 군인의 언어를 정확하게 재현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중요한 점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전쟁의 도구로 동원한 통치자들의 언어를 전후 오십 년이 지나서도 그들의 언어로 기억하고 증언한다는 점이다. 김창연 외에도 ‘위안부’ 피해자 강순애는 유년 시절 배급을 받기 위해 외웠던 황국신민서사를 ‘식민지’라 부르며, 심달연은 위안소에 동원되었던 일을 “덴노헤이카 다녀왔다”라고 표현한다.[46] 강순애가 배급을 타기 위해 황국신민서사를 외우던 일이 곧 그녀가 ‘식민지(민)’의 자리에 놓여 있음을 환기하는 일이었다면, 심달연이 기억을 잃을 만큼 끔찍했던 위안소 피해는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압도적인 폭력이어서, 그저 군인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었던 ‘덴노헤이카’라는 단어로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었을지 모른다. 이들이 구사하는 일본어는 표면적으로 부정확하고 비문법적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식민 지배와 전쟁 범죄의 주체가 누구이며 피해자들이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었는지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또한, 이 부러진(broken) 일본어 문장에는 피해자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당시의 상황을 인식하고 기억하려 했던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성은 일본어로 번역되면서 굴절 및 증폭된다. 일역본은 증언자가 구사한 일본어를 가타카나로 표기함으로써 일본어를 외부화하는 결과를 빚는다. 예컨대, ‘교라이’, ‘요시바’ 같은 단어들, 그 외에도 군인(ヘイタイ), 빨리(ハヤク), 내려라(オリナサイ) 등과 같은 일본어 단어·구문이 ‘위안부’ 피해자에 의해 발화됨으로써 균질한 일본어의 바깥으로, 타자의 언어로 식별되어 버린다. 그런 점에서 김창연의 “덴녕헤까이 단세이”가 일본어로 옮겨진 결과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번역자는 증언자의 부정확한 발음을 ‘교정’하여 정확한 발음 ‘덴노헤이카

46 「강순애 증언」(A00006416), 2002.11.7.(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소장); 「LA세계대회 심달연 할머니 증언」(A00006110), 2007.10.6.(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소장). 해당 자료의 이용을 도와주신 정의기억연대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반자이(テンノウヘイカ　バンザイ)'로 옮기는데, 이것은 증언자가 발화한 것이기에 굵은 가타카나로 표기된다. 즉, 병사가 내뱉은 일본제국 군국주의 정신의 정수는 식민지 출신의 '위안부' 피해자에 의해 재현/증언됨으로써 일본어의 '외부'로서 일본어 텍스트 속에 기입된다. 영어의 이탤릭 표기가 영어를 중심으로 '우리'와 '타자'를 재설정하여 전장의 언어를 타자성으로 뭉뚱그리고 있다면, 전장의 언어의 혼종성의 한 부분을 구성했던 일본어는 자기 내부의 지워지지 않은 전쟁의 기억을 타자의 발화를 통해 재확인한다.

5　문서고에서 웅성이고 있는 말들

오늘날 일본군 '위안부' 운동 및 학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하나는 '포스트 증언자' 시대, 곧 생존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새로운 증언이 생산될 수 없는 시대에 일본군 '위안부' 운동이 추구해 온 반전(反戰)과 여성 인권 수호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한일관계, 혹은 아시아 문제를 넘어 세계사적 지평에 위치 지으려는 움직임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미국 및 유럽 의회의 결의안 통과, 일본군 '위안부' 전후 배상에 관한 미국 법정에서의 재판, 증언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이 이루어졌거나,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지형 속에서 피해자의 증언과 그 번역의 문제는 핵심적 쟁점이 되고 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새로운 증언이 생산될 수 없다고 해서 증언의 새로운 의미마저 발견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일본군 '위안부' 증언은 시대적 조건과 담론 지형 속에서 계속해서 재청취되고 재발견되어야 할 기억유산이다. '위안부' 증언이 기억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권위로부터의 승인과 보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증언을 새롭게 청취할 수 있는 시각과 듣고자 하는 청중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운동이 동시대 세계사적 문제의식을 공유해가며 자기 갱신을 거듭해야 할 것은 마땅하나, 그것이 또 다른 권력 체계 속에서 '위안부' 문제를 재단하는 것은 아닌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고는 일본군 '위안부' 증언의 혼종적 성격을 드러내고, 혼종적인 언어가 다시 신·구제국의 언어로 번역되는 양상을 분석했다. '진

상 규명'이 우선적 과제였던 증언 연구 초기에는 피해자 증언에 내재하고 있는 이질적이고 혼종적인 언어가 상당부분 소거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 증언의 구술성 그 자체를 문자화하려는 시도에 따라 증언의 혼종성이 텍스트에 기입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영어, 일본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다. 본고는 증언자가 발화하는 이질적인 언어와 증언자가 스스로 해석하는 의미 사이의 간극을 가시화하고, 이 간극이야말로 폭력적인 언어 조건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은 피해자들의 행위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았다. 또, 혼종적인 언어가 영어와 일본어로 번역되면서 새로운 문법 체계 속에 귀속되거나 혹은 그것으로부터 이탈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서두에서도 밝혔듯, 가필 혹은 편집이 이루어진 증언집을 대상으로 한 본고는 증언의 언어를 분석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번역본 증언집은 일본군 '위안부' 증언의 혼종성이 국민국가의 공식언어와 어떻게 관계 맺는지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오늘날 연구자들이 접하는 '위안부' 증언은 대체로 가공된 것이라 연구의 시각이 증언의 언어 그 자체에 도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운동이 전환기를 통과하고 있는 지금, 의미화되지 못해서 증언집에서 탈락된 말들로 연구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오카나와에 남았던 '위안부' 피해자 배봉기의 평전을 완성한 가와타 후미코는 어느 인터뷰에서 종이상자를 가득 채우고 있는 카세트테이프를 보여 준 적 있다. 배봉기와 가와타 후미코의 십여 년 간의 대화가 기록된 테이프에는 가와타 후미코가 미처 다 듣지 못한 배봉기의 오키나와 방언, 충남 방언이 섞여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무수한 증언 조사, 증언 영상 기록 사업에서 내용 위주로 편집되고 '남은 말들'이 여전히 문서고에서 웅성이고 있을 것이다. 의미가 되지 못한 말들을 해석하려는 시도, 그것이 '포스트 증언자' 시대에도 여전히 새로운 증언을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 자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소,『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

들』, 한울, 1993, 1-314쪽.

_____,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2, 한울, 1997, 1-253쪽.

_____,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3, 한울, 1999, 1-389쪽.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한국위원회 증언팀,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4-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 풀빛, 2001(2011), 1-313쪽.

_____,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5, 풀빛, 2001, 1-349쪽.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부설 전쟁과여성인권센터 연구팀, 『역사를 만드는 이야기: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경험과 기억』, 여성과 인권, 2005, 1-359쪽.

The Korean Council for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ed. Keith Howard and trans. Young Joo Lee, *The Stories of Comfort Women*, London:Cassell, 1995, pp.1-200.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erance for The Issue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 Testimony Team for 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2000, edited and translated by Chungmoo Choi and Hyunah Yang, *Voices of the Korean Comfort Women-History Rewritten from Memories*, New York: Routledge, 2023, pp.1-179.

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挺身隊研究会編, 従軍慰安婦問題ウリヨソンネットワーク訳, 『証言 強制連行された朝鮮人軍慰安婦たち』, 明石書店, 1993, pp. 1-345.

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 2000年女性国際戦犯法廷証言チーム, 『記憶で書き直す歴史-「慰安婦」サバイバーの語りを聴く』, 金富子·古橋 綾 編訳, 岩波書店, 2020, pp. 1-316.

『경향신문』, 『동아일보』, 『여원』

단행본

모리카와 마치코, 김정성 옮김, 『버마전선 일본군 '위안부' 문옥주』, 아름다운사람들, 2005, 105쪽.

사카이 나오키, 후지이 다케시 옮김, 『번역과 주체』, 이산, 2005, 50쪽.

논문

김수진, 「트라우마의 재현과 구술사: 군위안부 증언의 아포리아」, 『여성학논집』 제30권1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13, 35-72쪽.

윤정옥, 「'정신대' 원혼의 발자취 취재기 (3) 타이 핫차이」, 『한겨레』, 1990.1.19.

이지은, 「민족국가 바깥에서 등장한 조선인 '위안부'와 귀향의 거부/실패-1991년 이전 대중매체의 일본군 '위안부' 재현을 중심으로-」, 『사이間 SAI』 제28권,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0, 367-402쪽.

_____, 「일본군 '위안부' 서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1-255쪽.

조의연, 「이중 언어 영어 작가 후노 디아스(Junot Díaz)의 탈 이탤릭체 담론의 비판적 분석」, 『철학·사상·문화』 제38호,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22, 279-294쪽.

기타

「강순애 증언」(A00006416), 2002.11.7.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소장)

박수남, 「아리랑의 노래-오키나와의 증언」, 1991.

「LA세계대회 심달연 할머니 증언」(A00006110), 2007.10.6.(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소장)

「国際社会における協働 ～ジェンダー平等と人権、そして平和へ～」, 『堺市』, 2012.12.19., 〈https://www.city.sakai.lg.jp/shisei/jinken/danjokyodosankaku/kaigi2009/hokoku2009/bunkakai/jyendabyodo.html〉, 2024.10.27.

「【在韓日本人会】「ナヌム(分け合い)の家」 イ・ヨンスお婆さん訪問及び奉仕活

動」, 『ASIA NEWS』, 2017.6.18. 〈https://asianews.seesaa.net/article/450971606.html〉, 2024.10.26.

Abstract

A Study on the Problem of Hybridity and Translation in the Testimony of 'Comfort Women'

Lee, Jieun

This paper reveals the hybrid aspect of the 'Comfort Women' testimony and zanalyzes how it is translated back into the language of the New and Old Empire. The 'Comfort Women' issue has been recognized as a boundary called the 'border' that was solidified after the end of the Pacific War, but the wartime sexual violence system called 'comfort station' has expanded along the 'front line'. The front line created an area different from that of the existing public power, and especially at the linguistic level, it formed a hybrid language by multinational subjects. Therefore, the victim's testimony about the war does not appear homogeneously in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nation-state. In the early days of the study, when 'finding the truth' was a priority, the heterogeneous and hybrid language inherent in victim testimony was largely eliminated. However, since the 2000s, the hybridity of testimony has begun to appear in the text by dictating the victim's spoken language. And it became more visible in earnest in the process of being translated into English and Japanese. This paper visualizes the gap between the heterogeneous language spoken by the testator and the meaning of the testator's self-interpretation, and sees that this gap reveals violent language conditions and the agency of victims who survived such situations. In addition, as hybrid languages were translated into English and Japanese, it was analyzed that they belonged to or deviated from the new national grammar system. The translation aspect of the testimony critically examines what uniqueness or specificity of the 'Comfort Women' issue erases in exchange for acquiring universality as it moves to the global historical horizon.

Key words: Testimony of 'Comfort Women', front line, border, translation, dictation, hybridity

논문투고 / 2024.11.22.
심사완료 / 2024.12.07.
게재확정 / 2024.12.08.